살았다	보도자료				2025년	
智州也正是创创	배포일자		1월 13일(화) 등 3매		수도권매립지 종료 ♥ 인천평역시	
담당 부서 자연재난과	담당자	• 자연재난팀 • 담당자	장 김성배 강민범			
사진	□ 없음	음 🔳 있음	참고자료	▮	] 없음	□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	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인천시, 올해 침수대비 만반의 준비

- 4월 16일까지 읍면동 수방자재 일제 점검 및 양수기 가동 훈련 실시 -
- 자율방재단, 통리장연합회 등과 풍수해 대비 민 관 협력체계 구축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4월 16일까지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 훈련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규모 행사를 지양하고 155개 읍·면·동 단위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내실 있게 진행한다.

읍·면·동에서 자체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 창고의 보관물품과 관리 대장의 일치여부 및 관리 상태까지 일제 점검한다. 아울러 양수기의 고장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가동 요령과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숙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방자재와 양수기 등이즉각적으로 전진 배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번 훈련을 계기로 자율방재단, 통·리장연합회 등과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풍수해에 대비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다지는 일 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기후온난화와 함께 기후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 간(평년 32일)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가 이어졌다. 또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매우 강한 태풍이 세 개나 인천에 영향을 줬다. 올 여름철 풍수해도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은 분명하다.

김원연 시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수방자재 일제 점검과 양수기 가동 훈련을 시작으로 저지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빗물 배수펌프장 점검하는 등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사전 활동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12일 10개 군·구에 방역마스크를 지원하고 도화1동에서 진행된 점검훈련에 참가했다.

〈붙임〉관련 사진

〈4월 12일 도화1동 점검훈련〉

